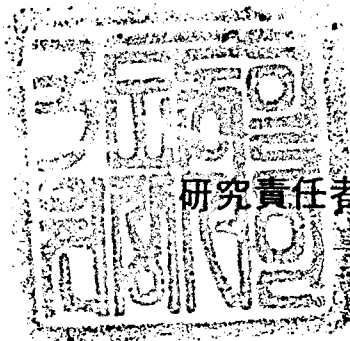


신진학자 통일연구

國統調 89-12-160

北韓 政治理念과 傳統政治文化의 關聯性 研究

1989



研究責任者：金 英 秀 (西江大)

國 土 統 一 院

冊 을 내 면 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本 研究는 外來理念으로서의 社會主義와 傳統理念으로서의 儒敎的 家父長制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北韓에 독특한 政治的 리더쉽과 政治文化를 産出하였는가를 糾明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査 研 究 室

要 約 文

本 研究의 목적은 現在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유지될 수 있었는 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北韓政治理念과 傳統政治文化와의 關聯性 與否를 밝 히는데 있다. 즉 現在의 특이한 政治들을 樹立·運營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 政治文化라는 요인과 얼마만큼 관련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研究은 外來理念으로서의 社會主義와 傳統理念으로서의 유교적 가부장제 및 신분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어떻게 모순되며 또 融和될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며, 두 理念의 조화 또는 상호모순이 어떻게 北韓에 독특한 政治的 리더쉽과 政治文化를 산출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결국 北韓政 治理念 및 통치체제 속에 傳統的 要素가 얼마만큼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糾明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北韓體制를 어떤 체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살 펴 본 다음, 北韓政治理念 속에는 어떤 전통적 要素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지, 또한 傳統의 影響力을 인지하고 있는 北韓 통치자들로서는 傳統의 해석을 이룸도록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 지를 歷史解釋의 한 실례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北韓政治理念과 傳統政治文化의 相關性 여부를 檢討한 결과, 다음의 명제들 을 도출할 수 있다.

〈명제 1〉 “ 北韓의 지배형태는 神政體制 (theocracy)라는 세속종교적 지 배 형태이다. 이는 그 원형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전체주의보다도 王朝時代의 전체주의체제에 더 가깝다.”

〈명제 2〉 “ 신정체제는 朝鮮朝의 儒教的 政治文化가 北韓 공산화 과정에

肯定的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명제 3〉 “北韓에서는 統治의 正統성과 效率性 創出을 위해 필요에 따라 傳統에 대한 해석을 操作化(operationalization)한다. 이 조작화의 基準은 김일성의 敎示이며 이의 결정체가 주체사관이다.”

위의 명제들은 첫째, 北韓政治體制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모델로만 보아서 안 된다는 사실과 둘째, 김일성 중심의 세속종교적 體制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傳統的 要素를 잘 조정, 管理하면서 北韓社會 구성원을 동원한 결과였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中立을 지키고 독자노선을 걷기 위해, 스탈린 격하운동에 자극받아 새로운 體制를 樹立하기 위해, 國內의 과별싸움에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統治이데올로기 創出이 必要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必要性은 부르조아 革命을 거치지 않고 社會主義化를 성취한 北韓社會의 근본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있었다.

즉, 점령공산주의 덕분에 歷史를 단축시킨 결과, 生産力 발전에 따른 社會的 富가 基本的으로 축적되지 못한 社會를 떠맡게 된 金日成으로서의 나눠줄 것이 없는 지상낙원에서 오직 무한정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金日成 首領의 한없는 사랑을 토대로 하는 非마르크스主義的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수 밖에 없었다.

결국 存在가 意識을 決定하리라는 命題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방식을 實踐함으로써 一個人의 意識이 다수를 지배해버리는 의식의 무서운 위력을 입증하는 實驗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傳統을 比較的 온전히 지닐 수 있었던 北韓社會는 이런 통치방식을 計劃했던 效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함으로써 儒敎的 共產主義體制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北韓統治 이데올로기의 特徵이고 장점

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이 김정일에게로 권력계승이 된 후에도 그 위력을發揮할 수 있는냐는 問題는 바로 이 특이한 이데올로기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目 次

| | |
|-------------------------------|----|
| I. 序 論 | 3 |
| II. 北韓政治理念 속의 傳統政治文化 | 4 |
| 1. 北韓政治體制的 性格 糾明 | 4 |
| 2. 北韓政治理念 속의 傳統的 要素 | 8 |
| 1) 朝鮮朝 政治傳統的 特性 | 9 |
| 2) 北韓政治理念 속의 傳統 | 11 |
| 3. 傳統的 操作化 事例研究：北韓의 茶山觀 | 19 |
| III. 結 論 | 27 |

I . 序 論

本 研究는 現在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유지될 수 있었는가 라는 問題意識 속에서 北韓政治理念과 傳統政治文化와의 關聯性 與否를 밝히는데 있다. 즉 現在의 특이한 政治를 樹立·運營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政治文化 라는 요인과 얼마만큼 관련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研究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研究는 外來理念으로서의 社會主義와 傳統理念으로서의 儒敎의 加부장제 및 신분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어떻게 모순되며 또 融和될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며, 두 理念의 造化 또는 상호모순이 어떻게 北韓에 獨특한 政治的 리더쉽과 政治文化를 産출하는 가를 보고자 한다. 결국 北韓 政治理念 및 統治體制 속에 傳統的 要素가 얼마만큼 강하게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지를 糾明하고자 한다.

우선 北韓體制를 어떤 체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살펴 본 다음, 北韓政治理念 속에는 어떤 傳統的 要素가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지, 또한 전통의 影響力을 인지하고 있는 北韓 統治者들로서는 傳統的 해석을 그들의 統治에 이롭도록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 지를 歷史解釋의 한 실례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Ⅱ. 北韓政治理念속의 傳統政治文化

1. 北韓政治體制的 性格 糾明

여기서는 現在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유지될 수 있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지금의 北韓政治體制를 어떻게 概念化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創案되고 러시아 革命家 레닌에 의하여 다듬어진 공산주의가 本格的으로 北韓에 유입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日帝의 敗亡 이후에서였다. 1945년 8월 8일 對日 선전포고를 한 蘇聯 극동군 제 25군은 만주와 北韓에 대대적으로 진격하여 8월 22日には 평양을 占領하고 치스차코프隊長을 사령관으로 하는 북조선주둔군 사령부를 設置하였다.

蘇聯軍隊는 軍정을 實施하면서 같은 해 10월 12일 다음과 같은 「北朝鮮주둔 소련 25군사령관 성명서」를 發表한 바 있다.

“소련군대는 만주에서와 北朝鮮에서 日本軍隊를 격파하였다.…… 소련군당국의 要求와 지령을 실행하며 社會秩序를 유지함에 있어 소련군당국에 협조하기를 호소한다.……” 1)

이러한 포고령에 따른 소련군정은 1948년 9월 9일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가 樹立될 때까지 實施되었는데, 이 期間동안에 北韓의 共產化는 蘇聯의 스탈린식 공산화 과정을 거쳐 일단 完了되었다. 그 후 韓國戰 이후 중공군의 占領下에서 소련의 統制力이 약화될 때까지 北韓은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갖지 못하고 오로지 소련의 官制 이데올로기만 수용했을 뿐이다. 즉 北韓의 이데올로기는 소련에 따라 들어온 占領共產主義에서 출발한 것이다.

1) 「朝鮮中央年鑑」(평양: 1949). p. 58.

그 후 北韓이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開發必要를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는 스탈린 격하운동이 심화되던 1955년 경이고, 本格的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던 시기는 中蘇紛爭의 격화로 더 이상 中共이나 蘇聯의 관제 이데올로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1966년경 부터이며,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체계화를 이룬 것은 主體哲學을 처음으로 내놓은 1970年代 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金日成 主體思想에 대해 北韓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이 뜻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사상의 원형이며 여기에 創造的 변형을 가했다는 의미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 要素를 얼마만큼 남겨 두었으며 어느 정도 創造하였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진 金日成 主體思想의 核心은 결국 人間中心의 세계관, 勤勞大衆 集團主義, 절대적 엘리트주의를 천명한 수령관이라 할 수 있다. 이 3가지 要素를 인민대중에게 劃一的으로 주입시켜 의식개조를 통한 인간개조를 달성하여 金日成을 우상화·신격화하려는 의식적 努力의 총체가 바로 金日成 主體思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인 것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金日成主體思想이란 金日成이라는 首領 한 사람의 전체체제 確立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の 자주성과 創造性を 최고 가치로 내세워 인본주의 哲學처럼 꾸미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人間の 자주성, 창의성 및 의식성은 黨의 指導를 받아야만 갖추어 질 수 있고, 또한 黨은 首領의 영도를 받아야만 바르

2) 北韓 社會主義 憲法 第4條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창조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자기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

게 人民을 영도할 수 있다는 論理이기 때문에 各 個人의 자주성, 창의성, 의식성은 首領인 金日成만의 자주, 창의, 의식으로 귀결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의 指示에 따라야 할 뿐이다.³⁾

결국 金日成主體思想에 따른다면 모든 권위의 원천은 金日成 首領 오직 한 사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體制는 이런 점에서 現代的 全體主義體制 보다는 일인 지배자의 카리스마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찾는 東洋的 專制君主制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支配者의 신성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구하는 神政體制(theocracy)라 할 수 있다.⁴⁾

지금 現在 北韓에서의 金日成의 存在는 ‘살아있는 신’(living God)인 現神人이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그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그 명칭만 바뀌게 될 뿐이다. 권력승계를 받은 김정일은 새로이 독자적인 그의 神性を 만들어낼 必要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金日成-김정일 權力繼承問題라든가 金日成 首領 死後 과연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상상은 훨씬 단순화될 수 있다.

이제 北韓에는 神性を 가진 살아 있는 神 金日成이가 있고, 이 神의 말씀을 모아 놓은 金日成著作집이라는 經典이 있고, 神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전파하는 사제단의 역할을 하는 勞動黨이 있다. 한마디로 北韓은 거대한 宗教團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3) 李相禹 外, 「北韓 40年-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特性과 變遷過程」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21-24.

4) 李相禹, “金日成體制的 神政的 特性”, 「東亞研究」 第 15 輯 (1988.10), p. 13.

이렇게 볼 때, 北韓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단순한 共產主義 國家가 아니다. 金日成主義라는 특이한 唯一神을 믿는 宗教國家이다.

北韓의 이러한 세속종교적 支配形態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르는 共產主義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조시대의 전제주의 國家體制에 더 부합된다.

이러한 신정체제로서의 北韓體制的 특징은 통치권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있다. 金日成은 人民의 政治生活 뿐만 아니라 經濟生活, 文化生活 및 精神生活까지도 支配한다. 결국 金日成 首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고 鬭爭하는 人民들로 구성된 社會가 바로 北韓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같은 특이한 體制가 北韓이라는 곳에 出現했는가? 어떤 요인이 作用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國家에서 出發한 國家를 신정체제를 지닌 東洋的 專制主義國家로 변형시키게 되었는가?

政治文化 때문인가? 解放當時의 北韓社會의 구조적 특징 때문인가? 蘇聯軍의 압력이라는 外勢때문에 可能했는가? 高度의 레닌식 戰略 進술 때문인가? 金日成의 탁월한 리더쉽 덕분인가? 아니면 또다른 要因이 作用했기 때문인가?

과연 어떤 要素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說得力이 있을지 또는 어떤 要素들을 조합시켜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는 앞으로 계속 많은 研究가 進行됨에 따라 보다 분명해지리라 본다. 단지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傳統의 影響 즉 政治文化의 影響이 오늘날의 北韓政治體制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힘을 發揮했다고 보고 이를 糾明하고자 한다.

共產主義體制를 研究할 때 채택할 수 있는 理論的 觀點 중에서 歷史·文化的 傳統接近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어떤 政治體制的 社會이든 뒤늦게 近代化의 길에 오르게 된 社會는 그 나름의 歷史와 文化的 傳統을 지닐 뿐 아니라, 그러한 傳統的 要素가 共產革命과 그 후속정권의 樹立, 전개에 影響

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이다.⁵⁾

北韓의 독특한 政治文化와 社會組織을 分析하는 데는 이 접근시각이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蘇聯이나 中國의 모델을 모방해 나가던 時期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年代 중반부터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독특한 유형의 近代化를 推進해 왔기 때문에 北韓을 단순히 어느 선진 모형으로 수렴되는 사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北韓은 해방과 더불어 폐쇄성향으로 기울어지다가 中蘇紛爭의 틈새에서 자구책으로 등거리의 교, 자주노선을 모색하던 중 主體思想을 내세워 金日成 유일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다시 말해, 理念的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면서 社會主義體制를 導入하여 東유럽의 共產衛星國家들과 유사한 변화를 推進하는 듯 했으나, 主體思想이라는 폐쇄정책의 결과로 하나의 近代的 傳統社會인 神政體制的 專制主義國家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依存할 수 있는 원천이 초기에는 蘇聯과 中國이었지만, 차츰 金日成을 정점으로 하는 現在 北韓의 政治體制的 특성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問題를 풀기 위해 朝鮮朝 傳統社會의 전통적 요소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가미됨으로써 특이한 政治體制를 갖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北韓政治理念 속에 어떤 傳統的 要素가 작용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2. 北韓政治理念 속의 傳統的 要素

現在の 北韓政治理念은 전형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政治이데올로

5) 李溫竹, 「北韓社會研究 - 社會學的 接近」(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p. 57-58.

기가 아니라 특이한 形態의 政治理念이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다 朝鮮朝의 傳統的 要素가 가미되어 나타난 특이한 形態로 전제할 수 있다.

現在의 신정체제 구성에 朝鮮朝의 儒敎政治文化가 얼마만큼의 影響을 미쳤는지 보기 위해 먼저 朝鮮朝의 政治傳統의 特徵을 보고자 한다.

1) 朝鮮朝 政治傳統의 特性

조선조가 5백여년이라는 장기간을 큰 저항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事實은 研究해야 할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특히 수차에 걸친 치명적인 외침에도 또한 교통·통신이 미비한 水準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體制를 존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朝鮮朝가 구축한 政治權力의 구조화 및 제도화의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朝鮮朝가 구축한 政治權力의 구조화 및 제도화에 參與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군주인 '王'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權力 피라미트의 첨단에 자리한 王은 能力만 있다면 신민들에게 무제한의 權力을 發揮할 수 있었다. 朝鮮朝의 王이 Karl Wittvogel인 「Oriental Despotism」⁶⁾에서 말하는 支配者의 총체적 권력행사 즉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총체적 權力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William Shaw가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⁷⁾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의에 의한 통치를 할만큼 무제한의 權力은 소유하지 못했는지를 구태여 따지지 않더라도 王의 위상은 군주로서 최고·최대의 權力을 권 상징임은 틀림없는 사실

6) Karl Wittvogel, 「Oriental Despot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7) William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1981).

이었다. 아 물론 王에 대한 절대적 충성 및 복종은 朝鮮朝 政治文化의 한 특징이었다.

다음 要素로서 中央執權의 官僚制度를 들 수 있다. 이 制度는 사실상 中國에서 수입한 것이나 오히려 朝鮮에서 效率的으로 잘 運營되었다. 종족구성, 言語를 비롯한 文化的 要素 地理的 條件 등에 있어서 더 동질이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中央에서 任命된 모든 官僚는 擔當分野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관찰사를 비롯한 地方長官들은 軍隊指揮權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地方의 반란은 쉽게 진압될 수 있었다.

결국 朝鮮朝의 政治體制는 문인관료가 중핵을 차지했던 體制였으며 그들은 비록 수는 적으나 그 能力, 지위영향력 때문에 모든 權力을 장악, 최대 面積의 土地를 장악한 支配層이었다. 이 계급은 모두 특권, 教育을 독점함으로써 그 자신을 再生産하는 特權을 누리기도 했다.

朝鮮朝의 政治體制는 이러한 中央執權의 官僚制를 바탕으로 近代國家처럼 權力의 大規模的인 구조화가 아니라 ‘王’이라는 支配者와 그 주변의 소수로 構成된 支配層을 中心으로 한 협소한 權力構造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朝鮮朝의 政治權力은 朝鮮社會內에서 最高의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하고 전사회에 걸쳐 결정을 作成·執行하기 위한 통치기구를 갖추었던 社會였으며, 그 정치기구의 결정을 주민이 항시 수용하도록 하는 권위도 갖추었던 社會였다. 것처럼 政治權力이 전조선 社會內에서 광범한 복종을 確保하여 ‘支配’로서 安定되면서 權力構造와 制度의 전체로서 朝鮮朝라는 政治體制를 完成, 確立했던 것이다.

또다른 특성으로서 ‘家’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朝鮮朝라는 體制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기구와 정통성이라는 가치체계 외에 여러 形態의 복종을 계속 調達해 주는 家族과 같은 社會構造를 必要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儒敎의 敎理가 가치판단의 基準이 되는 朝鮮社會에서

는 ‘家’야말로 社會의 重要한 기둥이었다. 그것은 支配-복종관계가 보존되어야 할 최소의 社會單位였고 그 때문에 倫理規範이 그대로 ‘家’ 속에서 구체화되었으며 行政的인 평면에서는 集團責任 즉 연좌제가 작동하는 장이기도 했다. 즉 家族 구성원 한 사람이 범한 罪에 대해 全家族이 責任을 져야만 했다.

이렇게 볼 때, 朝鮮朝 政治傳統의 本質은 세습적 絶對權力을 행사하는 王을 정점으로 하면서 사농공상이라는 嚴別된 身分構造를 바탕으로 한 社會의 피라미트의 정상을 차지했던 소수이면서 莫大한 政治權力을 소유한 양반官僚들과 그들의 位置를 가장 잘 보장해 주는 이데올로기로서의 儒教를 바탕으로 한 정통성, 그리고 양반官僚와 평민 사이에서 형성되고 오랜기간 이어져 온 行動패턴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⁸⁾

이러한 시간에서 朝鮮朝의 政治를 이해할 때, 朝鮮朝의 政治傳統으로서 첫째, 君主의 傳統과 둘째, 엘리트 支配방식인 官僚的 傳統과 셋째, 家라는 최소사회 단위를 社會·政治秩序의 지주로 간주하는 傳統을 들 수 있다.

2) 北韓政治理念 속의 傳統

‘傳統’이란 한 社會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 이어져 온 독특한 行動 패턴이다. 대개의 경우 傳統은 커다란 社會 변동을 겪을 때마다 그 진승의 양을 大幅 줄이거나 수정하게 된다.

北韓의 경우 부르조아 中心의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은 채로 共產化 되어 버렸기 때문에 傳統을 그다지 毀損시키지 않은 狀態에서 새로운 國家體制를 樹立할 수 있었다. 즉 王朝時代에 지녔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官僚制의 경

8) 朝鮮朝의 政治傳統을 政治學的 立場에서 정리한 韓培浩의 「韓國의 政治」(서울: 박영사, 1984), 제2장 및 제11장 參照.

직성 등은 거의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

또한 生産力 發達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社會主義革命에 의하지 않고 蘇聯 화물열차에 실려 온 정권 (luggage-train regime)에 의한 社會主義的 전환이었기에 北韓에서는 傳統的 要素가 오히려 더 질게 남아 있을수 있었다. 이는 占領共產主義의 特徵이기도 하다.

이제 北韓政治體制 및 政治理念 속에 남아 있는 傳統의 要素를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朝 儒教的 傳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王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權力의 세습체제 그리고 官僚들에 의해 運營된 中央執權的 官僚制를 들 수 있는데 이런 傳統的 要素가 어떻게 北韓社會에 남아 있는지 보기로 한다.

가. 首領觀과 傳統

北韓의 政治理念은 主體思想이다. 主體思想의 核心이 人間中心의 세계관, 근로대중의 集團主義 및 절대적 엘리트主義를 천명한 首領觀 임을 앞서 言及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重要的 것은 바로 首領觀이다.

北韓의 당기관지가 主體思想이란 “自主的·創造的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首領의 思想대로 사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金日成의 영도방법을 가리키는 部分에서 특히 金日成 首領의 유일적 支配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部分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9) 「勞動新聞」, 1972年4月13日字.

“勤勞人民大衆은 革命的 主體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革命的 勝利를 이룩할 수 없다. 勤勞人民大衆이 革命과 建設의 주인으로서 확고한 自覺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創造的 힘을 최대한으로 發揮하여 革命과 建設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勤勞人民大衆에 對한 政治的 領導가 保障되어야 한다. ……勞動階級の 탁월한 首領이 勞動階級과 勤勞人民大衆의 根本要求와 利益을 反映한 革命思想을 내놓고 그것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黨을 창건하고, 그의 革命的 領導를 實現함으로써만 勞動階級은 비로소 자주적인 革命的 階級으로 되는 것이다. 勞動階級은 탁월한 首領과 黨의 領導를 받음으로써만 자기 運命을 자주적으로 創造的으로 開拓해 나가는 자주적인 革命階級으로서의 참다운 政治的 生命을 지니게 된다.” 10)

이 말은 결국 “위대한 金日成首領을 영원히 우리 黨의 수위에 놓고 그가 내놓는 思想과 路線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代代孫孫 관철하여 나간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런 論理대로라면 北韓社會는 수령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構成되는 社會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수령님이 世界觀의 核心이 되는 수령님의 나라, 金日成의 나라 11)인 것이다. 이는 王이나 皇帝가 社會構成의 中心이 되고 世界觀의 中心이 되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金日成 首領이 王과 다를 바 없음은 北韓에서 出刊되는 刊行物들을 보면

10) 황장엽, “偉대한 수령님의 革命思想은 主體의 思想, 理論, 方法의 전일적인 體系”, 「勤勞者」 1979年4號, p.26.

11) 都興列, “北韓社會變化와 主體思想”, 「東亞研究」 第13輯(1988. 2), p.159.

쉽게 알 수 있다. 金日成 首領에 對해서는 갖가지 수식어를 붙인 최상급의 敬稱과 더불어 눈에 두드러지도록 고딕강조체를 사용하고 있다. 金日成에 對한 이러한 표기 관행은 王朝時代에 王이나 王命과 關係되는 記事가 나올 때 마다 반드시 上段一字를 띄어 쓰던 과거의 표기법을 상기시킨다.¹²⁾ 특히 이러한 표기 방식은 主體思想이 體系化되기 시작한 70年代 以後에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金日成이 王의 位置에 오르게 된 것은 물론 蘇聯의 의도적인 共產化 전술에도 연유하지만, 무엇보다도 北韓 人民들에게 남아있는 朝鮮朝의 政治傳統을 效率的으로 管理해 이를 統治의 테크닉으로 원용한 北韓政治集團의 意圖的인 전술의 結果라고 보아야 한다.

解放 當時 大學出身者가 全朝鮮을 통털어 約 7百餘名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남쪽으로 거의 모두 移動을 해버려 사실 以北에서는 歷史의 現實 및 그 흐름을 읽을 수 없는 문맹률 90%가 넘는 無知의 人民들만 남아 있는 形便이었다. 그런 狀況이었기에 北韓은 새로운 體制를 만드는 過程에서 知識人들로부터의 抵抗이라든가 人民들의 反對를 相對的으로 덜 받았다고 하겠다. 이는 北韓政權樹立 40餘年이 넘는 동안 ‘平壤事態’라든가 ‘平壤의 봄’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낯설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要約하면, 위로부터의 革命인 占領共產主義라는 樣相이 朝鮮朝의 傳統을 根本的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도 社會主義 革命을 可能하게 했고, 金日成은 共產化 過程에서 이 現實을 잘 利用하여 王으로 向하던 경이와 無條件的 忠誠을 首領을 向한 崇拜와 絶對的 忠誠으로 바꾸는데 成功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金日成은 傳統의 影響力을 잘 管理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 立脚한

12) 崔載賢, “北韓社會理念 속의 傳統的 要素”, 「東亞研究」 第14輯 (1988), p.137.

全體主義的 共產國家가 아닌 儒教的 共產主義國家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나. 權力世襲과 傳統

지금 現在 金日成은 今世紀의 政治指導者 중 가장 오래 統治한 記錄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個人 崇拜와 아침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例에서 잘 나타났듯이 많은 社會主義 國家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다. 事實上 北韓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유럽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個人崇拜의 傾向이 수세대에 걸쳐 널리 퍼져있다.¹³⁾

그러나 北韓에서 특이한 事實은 父子世襲體制를 制度化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政治的 承繼問題에 對處하기 위해서 金日成은 그의 큰 아들 金正日을 後繼者로 지목하고 있다. 지금 現在 金正日은 北韓에서 “北朝鮮의 英雄” ‘偉大한 指導者 同志’ ‘敬愛하는 指導者’ 등으로 칭송되고 있다.

만약 朝鮮時代의 王朝世襲體制的 관행대로 金正日에 對한 個人崇拜를 成功的으로 誘導해내고 그를 金日成의 政治的 後繼者로 確立시킬 수 있다면 北韓은 歷史上 最初의 共產主義 王朝國家로 看做될 것이다.

그런데 北韓이 父子世襲 方式이라는 獨特한 形式을 採擇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같이 非正常的 方法이 金日成 死後 北韓에서 現實的으로 權力繼承을 可能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答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北韓이 共產化 過程에서 崩潰성을 씻어내는 과도기로서의 革命的 近代市民社會 段階를 거치지 못하고 朝鮮朝의 崩潰성이 日帝殖民統治의 中斷 以後 그대로 北韓共產主義社會에 이어졌다는 點이다.

13) 길영환 저, 이원용 역, 「南北韓 比較政治論」(서울:문맥사, 1988), p.137.

이 點에 對해서는 모택동이 “中國은 封建社會로서 그 政治는 封建政治이고 그 經濟도 封建經濟이다. 그래서 그러한 政治와 經濟의 反映인 支配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文化도 封建文化이다”¹⁴⁾ 라고 그의 革命鬭爭時節에 言及했던 것처럼 北韓의 封建性도 傷處받지 않은 채 金日成에게 넘겨졌던 것이다.

앞 장에서 言及했듯이 北韓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實踐하는 國家가 아니라 金日成의 카리스마에 依存하는 新政治的 전체주의 국가라면 이 體制가 지니는 特性을 가장 잘 살리는 方式이 곧 父子世襲體制일 수 밖에 없다.

김영주의 登場과 실각을 보면 權力繼承 問題와 關聯된 北韓體制의 特性을 가장 뚜렷이 把握할 수 있다. 元來 金日成은 自身の 동생을 후계자로 선택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1973年 以後 그는 갑자기 政治舞臺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단지 1974年 副首相으로 잠깐 남아 있었을 뿐이다.¹⁵⁾ 이 사실은 後繼者 問題를 解決하려는 最初의 計劃이 失敗로 돌아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과 아울러 형제보다는 아들이 더 믿음직하다는 傳統的 思考方式의 反映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택동이 指名한 後繼者 화국봉이 실각하고 脫모택동 운동을 주도한 등소평이 집권하는 등 政治 指導者의 變化를 겪고 있던 와중에 중국 「인민일보」는 1980年 9月 19日 字에 「指導者와 人民」이라는 論說을 掲載한 적이 있다.

비록 이 論說은 中國이 當面한 問題解決을 위해 中國人을 대상으로 쓰여

14) 「毛澤東 選集」 第1卷(東京:三一書房, 1960), pp. 15 ~ 16. 裴相五金泰丸, “北韓 政治文化研究 試論”, 「忠南大學校 法律行政研究所 論文集」 第11卷(1984), p. 17에서 再引用

15) 길영환, 앞의 책, pp. 144 - 145.

진 것이지만 이 論說文은 北韓에서는 公開되지 못했다. 이 論說은 指導者와 人民間의 本質을 論하면서 이 關係는 人格的 依存보다는 平等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人民은 지도자를 選出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人民을 選出할 수 없다. 또한 지도자의 終身職과 自身の 後繼者 指名은 부르조아 사회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封建的 잔재이며 人民이 主人인 社會主義國家에서는 결코 容納될 수 없는 일”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¹⁶⁾

「人民日報」의 論理에 비취 본다면 金正日의 登場은 北韓이 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한 ‘아킬레스의 뒷꿈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50年代의 스탈린 사후의 蘇聯과 1970年代末 모택동 사후 中國에서 일어났던 權力鬭爭의 深刻性を 지켜본 北韓으로서는 아킬레스의 뒷꿈치가 問題가 되더라도 아킬레스 自體를 지키지 안 되는 絶박한 狀況에서 父子世襲體制를 의도적으로 고집하지 않을 수 없다.

다. 中央執權制의 確立

오늘날 거의 모든 社會主義 國家는 統治의 效率性 및 經濟의 合理的 計劃化를 爲하여 中央執權의 支配形態를 取하고 있다. 北韓도 政權樹立 初期부터 中央執權制의 必要性을 強調해 왔다.

이러한 方針은 1945年 10月 3日 行한 金日成의 進步的 民主主義에 對하여”라는 講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民主主義와 中央執權制는 서로 軋 수 없는 하나의 全體를 이루고 있습니다. 民主主義는 保障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中央執權制란 생각할 수 없으며 반대로 中央執權制가 保障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民主主義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民主主義의 自由와 平等은 中央執

16) 길영환, 앞의 책, pp. 145 - 146에서 再引用.

權的 統一性에 依해서만 確固히 保障됩니다.¹⁷⁾

이런 趣旨 속에서 實施되고 있는 北韓의 中央敎權制는 主體의 人間形이라는 만들어진 共產主義的 人間形과 결부됨으로써 더욱 그 效力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主體의 人間形이 지켜야 하는 社會規範은 ‘하나를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 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든 人民은 社會의 모든 組織生活에 積極 參與하며 全體를 爲하여 個人의 個性은 되도록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社會를 이런 方式으로 運營하려는 態度는 프롤레타리아 獨裁說과 民主集中制論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하나의 君主 아래 統一된 支配秩序를 維持해온 各種의 儒教的 生活共同體의 傳統에서 그 源泉을 찾을 수도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北韓政治理念 속의 傳統的 要素를 볼 때, 傳統의 繼承이야말로 北韓政治理念의 뚜렷한 한 徵候이며, 傳統要素를 취사선택하고자 한 努力이 主體思想을 定立해 나가는 밑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政治的 리더쉽 側面에서는 金日成 首領이 王朝時代의 王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傳統性이 強하고, 首領의 카리스마적 權威가 金正日에게 이어지도록 오랜 기간동안 치밀하게 準備해 왔다는 點에서도 또한 그러한 計劃이 北韓 社會에 별 큰 抵抗없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點에서 北韓社會의 封建性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北韓社會의 特徵은 밑으로부터의 革命을 거치지 않은데서도 起因하

17) 金日成, “進步的 民主主義에 對하여”, (平壤勞動政治學校 學生들 앞에서 行한 講議) 「金日成 著作集1」(1979), p.293, 崔載賢, 앞의 글, p.102.에서 再引用.

지만 무엇보다도 重要한 事實은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 統治者들이 이 點을 統治의 테크닉으로 잘 活用해 왔다는 點이다. 즉 儒敎的 政治文化가 미치는 肯定的 影響力을 統治過程에 잘 利用하고자 努力한 結果라고 하겠다.

3. 傳統의 操作化 事例研究：北韓의 茶山 丁若鏞觀

北韓 社會가 부르조아 中心의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고 蘇聯軍에 依해 共產主義가 수입됨에 따라 朝鮮朝 때부터 내려오면 傳統的 要素가 社會 구석 구석에 온전히 남아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北韓社會의 特徵을 北韓 統治者들이 看過하지 않고 統治의 效率性과 正統性 創出을 爲해 利用해 왔음을 또한 지적했다.

한마디로 金日成을 비롯한 政治엘리트들은 “歷史를 支配하는 者가 未來를 支配한다.”는 명제를 매우 잘 把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緣유에서 어느 정도 政治的 安定을 찾은 以後부터는 本格的으로 過去를 支配하려는 作業에 온 힘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1950年代 末부터 本格的으로 시작한 歷史의 재해석은 많은 論爭을 불러 일으켰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분명히 노출시켰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마르크스 역사관에 입각한 朝鮮歷史의 재해석 作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그 結果 北韓의 主體思想은 確立되기 시작했다.

이제 北韓이 統治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爲해 過去 歷史를 해석하는데 있어 얼마만큼의 진폭을 보여 왔는 지 歷史研究의 實例를 통해 檢討해 보기로 한다.

過去의 歷史를 모두 檢證의 對象으로 삼을 수 없기에, 시각의 變化에 따라 解釋의 變化를 比較的 잘 나타낸 事例로서 北韓에서의 茶山 丁若鏞觀을 놓고 그 操作化의 진폭을 보기로 한다.

評價의 變化過程을 보기 爲해 北韓에서 出刊된 茶山 關聯 著作의 出版時期를 基準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第1期(政權樹立 以後~1950年代末)

1952年 12月 15日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5次 全會員會議에서 金日成은 ‘黨의 組織的, 思想的 強化는 우리 勝利의 基礎’라는 報告를 통해 “우리 先祖들이 써놓은 歷史나 地理나 其他 軍事, 政治, 經濟, 文化 分野의 高貴한 遺産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見地로 分析하고 그를 攝取하여 發展시켜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越北作家 최익한은 그가 그동안 높이 評價해 왔던 丁若鏞에 對해 體系的인 整理를 하여 1955年 「實學派와 丁茶山」을 出刊하였다.

이 책의 序文에, “우리 民族의 優秀한 文化的·思想的 傳統을 理解 천명하기 위한 한 개 重要한 고리로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思想的 強化’를 強調하는 분위기 속에 쓰여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상편은 實學派의 史的 發展, 하편은 實學의 대성자 丁若鏞에 對한 研究라는 小제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최익한은 實學이란 “思想, 學說이 그 時代의 歷史發展과 人民의 利益에 도움이 되는 實利와 實用性 있는 學問”이라고 전제한 後, 茶山은 이 實學을 完成시킨 대성자라고 評價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그는 儒教經典에 새로운 解釋을 가한 點에서 留學 改革思想을 지녔으며, 認識과 批判에 있어서 尤물론적요소가 있다고 評價한다. 特히 民主의, 文벌, 계급 및 地方差別制의 타과를 비롯하여 農민문제의 最終的 解決案인 閭田制라는 土地國有에 依한 土地分配를 지향하였다는 點에서 茶山을 民主主義的 反封建思想家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다.

단지 이처럼 時代를 善導하는 思想家임에도 不拘하고 社會의 落後 및 歷

史的 制約이라는 客觀的 條件 때문에 다가올 부르조아 社會를 科學的으로 豫見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茶山의 價値를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라는 用語로서 評價하면서 18) 茶山의 進歩的·唯物論的 입장을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見解는 唯物論에 立脚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最初의 成果로서 評價되면서 北韓學界의 公式的인 見解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2) 第2期(1960年代)

이 時期의 茶山에 關한 北韓評價視覺은 1962年7월에 發刊된 論文集인「茶山 丁若鏞 誕生 200週年 紀念 論文集」에 잘 集約되어 있다.

이 책은 北韓 科學院 哲學研究所가 茶山 誕生 200週年을 맞이하여 “丁茶山의 빛나는 生涯와 선진사상과 學問的 業績을 正當하게 규명하여 全體 人民의 심장 속에 民族的 긍지와 愛國主義的 정열을 더욱 북돋아주며 民族文化遺産의 繼承發展을 爲한 科學 研究事業에 일층 박차를 加하는 하나의 契機로 삼고자” 19) 發刊한 것이다.

이 책은 김석형, 정진석, 김광진, 리용태, 신구현, 박시형, 정학모, 박형성 등의 各分野 北韓學者들이 哲學, 社會·經濟思想, 自然科學思想, 文學, 歷史觀 및 朝鮮語 研究 및 教育思想 등의 觀點에서 廣範圍하게 茶山研究業績을 解釋한 것이다. 따라서 이 時期에 北韓에서 丁茶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重要한 資料라고 본다.

當時 北韓學者들은 이 책에서 丁茶山을 대단히 높게 評價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茶山의 哲學思想에 對한 評價에서 部分的으로 觀念論的 解釋을 排除시키지 않으려는 立場에서 벗어나 “先行學者들의 唯物論的 見解를 繼承하

18) 최익한, 「실학과와 정다산」(서울:청년사, 1989), p.10.

19)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의 序文.

여 唯物論的 哲學體系를 樹立하였다”고 까지 評價하고 있다.

越北學者인 歷史學 博士 김석형은 “茶山 丁若鏞의 生涯와 活動”에서 茶山의 영특한 姿質이 큰 힘을 發揮하여 反對派들의 중상과 음모 속에서도 眞理를 사랑하며 祖國과 人民을 사랑하는 실학에 매진할 수 있었으며, 그의 천재적이며 革命的인 탁견이 閭田制를 비롯한 進歩的 思想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評價하고 있다. 또한 정진석은 “茶山 丁若鏞의 哲學思想”에서 그의 哲學思想에는 階級的, 理論的 制限性이 있으나 그의 唯物論的 哲學的 見解와 進歩的 社會·政治的 見解는 朝鮮 哲學 發展에 巨大한 긍정적 役割을 했다고 評價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思想은 封建착취계급을 反對하는 鬭爭으로 農民들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社會發展에서 生産力의 發展이 미치는 主要한 役割에 착안한 進歩的 思想家라고 評價하고 있다.

科學院 후보원사(1962年 當時) 김광진은 그의 社會·經濟思想에 對해 評價하면서, 그는 非現實的이며 낡아빠진 儒敎理論을 實學的 立場에서 分析 批判하였으며 원시 儒敎의 唯物論的 要素를 攝取하여 當時 社會發展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다.

그런데 越北學者出身 科學院 원사 박시형은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에 對해 상대적으로 批判的으로 評價하고 있는데, 「湯論」, 「原牧」에 나타난 茶山思想이 그 自體의 體系로서 끝까지 展開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理論에 근거하여 當時 現存 封建王朝를 폭력에 依한 革命으로 진복한 거나 새 社會를 建設하기 爲해 具體的으로 어떻게 行動해야 한다는 理論的 展開를 펼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歷史觀의 制限性, 유배지에서의 研究資料 부족 등에서 起因하는 結果라고 함으로써 茶山에 對한 부정적 시각을 強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특히, 박시형은 다산의 「我邦疆域考」, 「渤海考」등의 價値를 높이 評價하면서 역시 茶山은 偉大한 先進的 思想家이며, 卓越한 歷史學者라고 評價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誕生 200 週年 紀念 論文集에 나타나고 있는 茶山 評價視覺은 全般的으로 강한 肯定的 性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특히 唯 物論的 進歩論者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崔익한을 中 心으로 나타난 觀點에 비해 보다 더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第3期(1970年代~現在)

1969年 7月 金日成은 “社會科學의 任務에 對하여”라는 敎示를 通하여 實학과와 그들이 主張한 策 견해를 主體的 立場에서 바르게 評價하라고 指 示한 바 있는데 20), 이에 따라 北韓에서는 實학의 歷史的 位置와 役 割, 階級的 基礎와 思想的 本質, 그 進歩性과 制限性 등에 걸친 새로 운 研究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새로운 研究가 시작되지않 으면 안 되었다.

이는 1-2年 後 出版된 「經濟辭典」(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 1970) 및 「歷史辭典」(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71)의 關聯 項目을 찾아보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經濟辭典」의 ‘경제유표’項目에서는 茶山의 근본 입 장과 기본 사상은 어디까지나 봉건지배계급의 立場이며 傳統的인 儒教思想이 라고 評價하면서, 「經世遺表」에서 당시로서는 進歩的인 말기들도 담겨 있으 나 國家 및 社會制度에 對한 著者의 見解는 여전히 봉건적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評價視覺을 絶下시키고 있다.

「歷史辭典」의 ‘실학’ 및 ‘정약용’項目에서도 그러한 視覺은 드러나고 있 는데, “실학은 當時로서는 進歩的이었고 또 그後 개화사상과 愛國文化啓蒙運 動에 一定한 影響을 주었지만 그 思想的 本質은 대체로 중소토지소유자계 층 에 屬하는 낡고 反動화된 양반들을 반대하는 思想에 不過했다”고 하면서 “丁若鏞도 유학자였던 만큼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思想은 불철저한 것

20) 「金日成 著作集」 第22卷, p.51.

으로서, 閔田制 실시를 主張한 근본취지는 가혹한 착취를 다소 調節함으로써 封建國家의 이익을 더 잘 保護하는데 있었으며, 노비문제 및 농민폭도에 對한 觀點이 근본적으로 保守的이었다”고 혹평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형성에는 “그의 愛國精神은 비록 좋은 것이지만 결코 勤勞人民을 진정으로 代表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을 爲한 나라를 構成한 것이 아니었다” 21) 는 茶山의 進歩의 사상에 깔려있는 계급적 本質에 對해 具體的으로 지적한 金日成의 敎示는 決定的이었던 것이다.

이런 敎示를 고려하여 실학파에 對한 재해석을 한 책이 1974年 정성철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實學派의 哲學思想과 社會政治的 見解」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言及한 최익한의 見解가 부분적으로 批判받으면서 수정되고 있는 바, 茶山은 封建制度 自體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古代의 封建國家로 復歸하려고 노력한 人物이라고 評價되고 있다. 즉, 茶山은 當時로서는 一定한 進歩的 역할을 行한 愛國的 思想家임은 認定하지만 그 本質은 封建的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62年版을 보강한 77年版 「조선통사」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조선전사」 33卷 中 李朝歷史를 다루고 있는 10-12권(1980)에 具體的으로 잘 기술되고 있다. 22)

그 후 80年代에 出刊된 著作들에서도 茶山을 비롯한 실학파를 보는 視覺이 더 批判的으로 기울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1985年 社會科學院 哲學研究所가 刊行한 哲學辭典의 ‘실학사상’ 및 ‘정약용’ 項目을 보면, “실학사상가들은 봉건적 制關係가 支配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회역사적 조건과 自身들의 양반계급적 制限性으로 인해 봉건유교사상에서 完全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21) 「歷史辭典」 p.297의 ‘정약용’ 항목.

22) 特히 「조선전사」 第12卷의 第7章 第1節.

봉건제도 自體를 根本적으로 부정 못한 결합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술하면서, 다산을 包含한 實學思想家들 대부분은 基本的으로 觀念論者라고 못하고 있다.

博士 최봉익에 의해 社會科學 출판사에서 간행된 「朝鮮哲學史 概要」(1986)도 그 부제가 ‘主體思想에 의한 朝鮮哲學史(1962)의 지양’이란 점에서 다산을 보는 시각이 앞의 水準과 다를 바 없고, 1987年 刊行된 정성철의 「朝鮮哲學史Ⅱ」의 연구시각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第3期에 와서는 그 이전까지 진보적 유물론자로 평가 받던 다산이 봉건적 울타리를 넘지 못한 觀念論者로 轉落하는 모습을 發見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北韓의 茶山에 대한 評價視角을 정리하면, 우선 최익한을 중심으로 한 第1期에서는 시대적 制約性을 지니는 약점은 있으나 진보적 유물론적 견해를 지닌 思想家·改革家로서 茶山을 評價하고 있고, 第2期에서는 「茶山 정약용 탄생 200주년 記念論文集」에 集約되어 있듯이, 전반적으로 강한 肯定的 評價를 하면서 유물론적 진보론자로서 높이 評價되고 있는데 반해, 69年 “社會科學의 任務에 관하여”라는 교시가 있는 후 나타난 第3期の 評價는 정 반대로 봉건적 틀 속의 觀念論者로서 한정 짓고 있다.

왜 茶山評價의 觀點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 왔는가? 觀點을 變化시킨 根本要因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重要的 要因은 金日成의 敎示이다. 茶山 정약용 研究는 1952年 思想的 強化를 促求한 敎示에 따라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62年 「茶山 탄생 200주년 記念集」의 刊行으로 그 절정을 구가하다가, 결국 1969年 ‘社會科學의 任務에 대하여’라는 敎示를 계기로 茶山評價視角에는 반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北韓 茶山學은 결국 1952年 思想強化를 강조하는 金日成의 敎示로부터 시작하여 69年 敎示에 의해 그 연구시각이 전

환되면서 現在까지 進行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진행과정 속에서 가장 큰 影響力을 미친 것이 바로 ‘실학과 인물들에 대한 評價에서 좌우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方法論的 指針’인 69年 敎示이다.

이 敎示는 왜 69년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는 당시가 北韓에서의 政治理念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主體思想으로 轉換되는 時期임과 아울러 金日成·金正日的 權力承繼作業이 推進되던 時期였다는데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때를 전후하여 思想鬭爭이 本格的으로 시작되면서, 과거의 歷史를 再解析하고자 하는 北韓指導層의 강한 의지가 歷史學者들의 學文的 연구시각의 선택을 단 하나로 만들었다고 보겠다.

한마디로 歷史를 研究하는 學者들의 학문적 양심도, 研究에 대한 執念도 主體思想을 앞세우는 政治的 壓力 앞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위험한 것이었다. 즉 主體史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學者의 지위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北韓에서, 敎示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정도인지를 보기 위해, 1985年 朝鮮勞動黨 창건 40 週 紀念으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發刊한 〈위대한 主體思想 총서〉(전 10 권) 중의 「主體思想의 社會歷史原理」에 나오는 한 귀절을 보면, “首領의 思想은 곧 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革命的 세계관이며, 首領의 敎示는 全體 人民의 組織的 의사이며 首領의 뜻은 人民大衆의 한결 같은 의지”라고 씌여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北韓에서는 首領의 敎示를 무조건 執行하는 것이 首領에 대한 충실성의 基本 要求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首領의 敎示는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위상을 지닌 敎示 또한 主體思想의 형성과정 속에서 必要에 따라 그 範圍와 강도를 달리해 왔기 때문에, 결국 首領의 敎示의 內容變化에 따라 茶山評價를 包含한 역사해석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Ⅲ. 結 論

本 研究는 現在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 유지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傳統政治文化와의 관련성 興否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즉, 現在의 특이한 政治體制를 形成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政治文化라는 요인과 얼마만큼의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考察하였다.

研究 結果 다음의 命題들을 도출할 수 있다.

〈 명제 1 〉 “ 北韓의 支配形態는 神政體制(theocracy)라는 세속종교적 支配形態이다. 이는 그 원형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全體主義보다도 王祖時代의 全權주의체제에 더 가깝다.”

〈 명제 2 〉 “ 신정체제는 朝鮮朝의 儒敎的 政治文化가 北韓 共產化 과정에 肯定的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可能했다.”

〈 명제 3 〉 “ 北韓에서는 통치의 正統성과 效率性 創出을 위해 必要에 따라 傳統에 대한 해석을 操作化(operationalization)한다. 이 조작화의 基準은 金日成의 敎示이며 이의 결정체가 주체사관이다.”

위의 명제들은 첫째, 北韓政治體制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모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둘째, 金日成 中心의 세속종교적 體制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傳統的 要素를 잘 조정, 管理하면서 北韓社會 구성원을 동원한 결과였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研究 結果를 놓고 볼 때, 왜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儒敎的 政治文化를 수용하면서 이를 통치의 처방전으로 쓰게 되었는가? 라는 根本的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中立을 지키고 독자노선을 걷기 위해 스탈린 격하운

에 자극받아 새로운 體制를 樹立하기 위해, 國內의 과벌 싸움에서 명분을 찾기 위해라는 등등의 理由를 들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쳐야 될 歷史의 변천단계를 거치지 않은 北韓社會의 취약점과 이런 社會를 통치해야만 하는 金日成 首領으로서의 딜렘마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서구라과 社會처럼 부르조아 革命을 거치지 않고 社會主義化를 성취한 北韓社會의 근본 취약점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눠 줄 物的 土臺가 매우 허약하다는 점이다. 占領共產主義 덕분에 歷史를 단축시킨 결과, 生産力 發展에 따른 社會的 富가 基本的으로 축적되지 못한 社會를 떠맡게 된 것이다. 그런 狀況에서 社會主義 經濟모델에 따라 經濟計劃을 시도했으나 국부의 增大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눠줄 것이 없는 지상낙원에서 오직 무한정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金日成 首領의 한없는 사랑 밖에 없었다. 首領의 사랑이라는 精神的, 觀念的 사랑으로 物的 토대의 부족분을 채워 나갈 수 밖에 없었다.

存在가 意識을 決定하리라는 命題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방식의 實踐이었다. 一個人의 首領의 意識이 다수를 首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의식의 무서운 위력을 입증하는 實驗이기도 했다.

게다가 北韓社會는 比較的 傳統을 온전히 지닐 수 있었기에 이런 통치방식은 計劃했던 效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면서 儒教的 共產主義體制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北韓統治이데올로기의 特徵이고 장점이다. 물론 그 사랑의 힘이 金正日에게로 權力繼承이 된 후에도 그 위력을 發揮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이는 곧 이 統治이데올로기의 한계가 된다.

아 물론 北韓政治體制를 傳統政治文化와 關聯시켜 分析하려는 研究는 韓國에 권위주의적 政治體制가 등장하게 되는가라는 研究主題와 관련될 때 좋은 比較研究가 된다. 아울러 自由民主主義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傳統의 要素를

그동안 얼마만큼 잘 管理・繼承해 왔는가를 검토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

즉 朝鮮王祖를 본 바탕으로 하는 南・北韓의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각기 다른 가정인 美國과 蘇聯에 強制的으로 입양된 후, 모양은 같으나 성격이 다른 一卵性 쌍둥이로 자라났는지 혹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二卵性 쌍둥이로 자라났는지, 아니면 입양가정의 특성을 배제시키면서 雙童이로서의 先天的 特質을 점점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提供하리라고 본다.

위에서 본 것처럼 北韓의 傳統的 要素가 統治에 肯定的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이를 自由民主主義 社會樹立에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를 檢討하여 統治의 戰略으로 活用할 수 있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理論的 배경없이 忠・孝 등의 전통요소만 피상적으로 強調해 왔던 統治技術보다 더 세련된 統治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必要한 作業이다.

이는 南北韓 體制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 관건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完全히 떨쳐버릴 수 없는 傳統的 사고방식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效率的으로 管理・調整하느냐에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北韓政治理念과 傳統政治文化의
關聯性 研究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1 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번지

정부종합청사 405 호 電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양 동 문 화 사

<非賣品>

